



# “나는 언제나 ‘한국인’이었습니다”

최근 한 대학병원 의사의 한국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이 화제다.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이란 제목의 이 책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소장이 쓴 에세이집이다. 푸른 눈에 큰 키, 서구적인 외양을 갖고 있는 그가 자신의 영혼은 ‘한국인’이라고, 한걸음 더 나아가 ‘순천 촌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그의 일터,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를 찾았다. 글 口 박연숙(본지기자)

## #1. 아직도 헛갈리세요?

책의 제목처럼 인요한 소장은 전라도 순천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냈다. 영어보다 먼저 배웠다는 전라도 사투리, 지금도 언뜻언뜻 배어나오는 전라도식 억양에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노라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진다.

“아직도 헛갈리세요? 저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한 번도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직도 저를 ‘잔(John)’ 이로 기억해주는 고향 분들, 친구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순천은 저의 영원한 고향이죠.”

한국과 그와의 인연은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5년 선교를 위해 한국땅을 밟은 의증조부 유진벨 목사, 그의 딸이자 인요한 소장의 할머니인 샬럿 벨은 또 다른 한국인 선교사 윌리엄 린튼과 결혼을 했으며, 윌리엄 린튼의 셋째 아들이자 인요한의 아버지인 휴 린튼, 그리고 인요한 소장까지, 이쯤이면 그를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다.

## #2. 결핵과의 오랜 인연

인요한 소장의 어머니인 인애자 선생은 결핵자활요양원인 ‘순천기독교결핵재활원’을 세운 분이거

도 하다. 50년도 말 우리나라에서 결핵이란 병은 무섭고도 흔한 질병이었다. 이때 인요한 소장의 친형 세 명이 모두 결핵을 앓았고, 어머니는 광주기독병원에서 결핵 병동을 돕다가 집 방 하나를 개 방해 의사를 불러 놓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결핵과의 뿌리깊은 인연의 시작이었다.

“한미재단에서 흑벽돌집을 하나 지어주어 그곳에서 결핵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죠. 결핵환자들을 격리시켜 요양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머니는 자비를 털어 이 요양원을 운영하셨고요.”

전남 순천에 위치한 기독결핵재활원은 잘 정돈된 주변환경과 이국적인 건물, 깨끗한 시설이 눈에 띄는 결핵 요양시설. 인요한 소장의 형은 외증조부인 유진 벨 목사의 뜻을 이어 북한보건의료 지원사업 및 결핵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북한 보건의료 지원 결핵퇴치 사업을 위해 수도 없이 북한을 드나들었던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니뭐니 해도 어머니가 호암상을 받은 상금으로 북한에 검진차를 지원한 것이다. 북한 땅에서 꾸준하고도 조건없는 지원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동안 북한 역시 유진 벨 재단에 대한 신뢰를 보여 왔고, 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결핵퇴치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 #3. 남들과 다르고 싶지 않았다

인요한 소장의 일터인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는 외국인 진료와 유학, 이민 등 비자 발급을 위한 신체 검사 등을 전담하고 있다. 남들은 그를 ‘언젠간 미국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똑심있게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했다.

“연세의대 재학시절 한국 학생들이 하는 건 다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없는 문무대에 입소했고 퇴소할 때는 상도 받았죠. 의대 공부 역시 쉽진 않았어요. 한국어와 영어엔 자신 있었지만 한자에 약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몇 배로 시간을 투자해야 했죠. 그리고 한국에서 의사 고시에 합격한 날,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한국인임을 의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를 바랐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요.”

80년대 광주사태 당시 의신기자들의 통역을 맡았다가 ‘빨갱이’로 오인받기도 하는 등 이 푸른 눈의 한국인은 그 세대 젊은이들이 겪었던 치열함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이는 인요한 소장이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한국인의 영혼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동네에서 ‘짠’이라 불리며 인기가 많았던 어린시절의 인요한 소장(가운데).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 인상적이다.

#### #4. 인터뷰를 마치며...

인요한 소장은 책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라가 발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왔지만 인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렸을 적 순천에서 뛰어놀며 그저 행복했던 옛날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정이 많잖아요. 그 시절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서 책을 썼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이번에 책을 내고 난 후 유진 벨 재단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 많은 매체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의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평소 결핵협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인요한 소장은 “결핵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협회가 할 일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소외계층의 결핵 문제를 비롯해 통일 후를 대비해 북한의 결핵 및 보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시오”라며 부탁을 잊지 않았다.

최근 잇단 돌발 행동으로 국제관계에 있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 제3자의 입장으로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만도 없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숙제 하나를 받아온 듯한 기분으로 병원을 나섰다. †